Evaluation in IR 검색시스템의 평가

NAVER 임민섭

검색시스템의 key utility?

- User happiness!
- 유저들은 엄청나게 빠르면서 의미없는 검색결과를 원하지 않는다!
- 하지만 user happiness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에 영향도 많이 받는데… (UI가 이쁘냐, 보기 편하냐, 등)
- ·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"검색결과"의 질을 평가하는 법을 보자!

검색시스템의 key utility?

- User happiness!
- 유저들은 엄청나게 빠르면서 의미없는 검색결과를 원하지 않는다!
- 하지만 user happiness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에 영향도 많이 받는데… (UI가 이쁘냐, 보기 편하냐, 등)
-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"검색결과"의 질을 평가하는 법을 보자!

검색시스템의 key utility?

- User happiness!
- 유저들은 엄청나게 빠르면서 의미없는 검색결과를 원하지 않는다!
- 하지만 user happiness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에 영향도 많이 받는데… (UI가 이쁘냐, 보기 편하냐, 등)
-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"검색결과"의 질을 평가하는 법을 보자!

검색 시스템의 key utility?

- User happiness!
- 유저들은 엄청나게 빠르면서 의미없는 검색결과를 원하지 않는다!
- 하지만 user happiness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에 영향도 많이 받는데… (UI가 이쁘냐, 보기 편하냐, 등)
-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"검색결과"의 질을 평가하는 법을 보자!

검색 시스템의 key utility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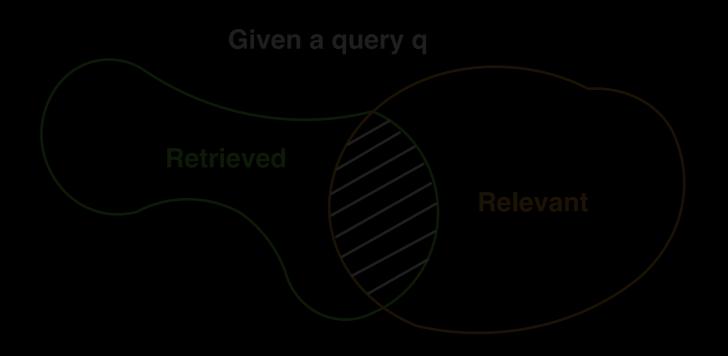
- User happiness!
- 유저들은 엄청나게 빠르면서 의미없는 검색결과를 원하지 않는다!
- 하지만 user happiness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에 영향도 많이 받는데… (UI가 이쁘냐, 보기 편하냐, 등)
- ·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"검색결과"의 질을 평가하는 법을 보자!

- 테스트 collection에는 다음 세가지가 필요하다.
 - 1. 문서 collection
 - 2. Query로 표현 가능한 test information needs set.
 - 3. 각 (문서, query) 페어 간의 relevance 정보

- · 기본적인 Terms
 - 1. Information need : "유저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"
 - (예) "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심장병 예방에 좋은가?"
 - 2. Query:information need 의 한가지 표현 방식
 - (예) 레드 와인 ^ 화이트 와인 ^ 심장병 ^ 예방
 - 3. Relevance : 일반적으로 이진(binary) 속성으로 나타내며 단순히 query term을 다 포함해야 relevant 한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need 를 잘 충족 시켜야 relevant 한 것이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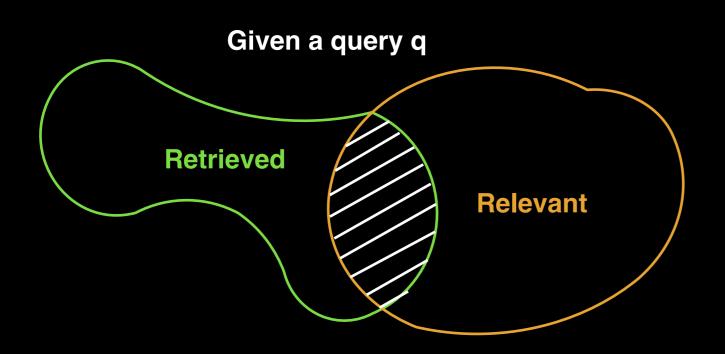
- · 기본적인 Terms
 - 1. Information need: "유저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"
 - (예) "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심장병 예방에 좋은가?"
 - 2. Query: information need 의 한가지 표현 방식
 - (예) 레드 와인 ^ 화이트 와인 ^ 심장병 ^ 예방
 - 3. Relevance : 일반적으로 이진(binary) 속성으로 나타내며 단순히 query term을 다 포함해야 relevant 한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need 를 잘 충족 시켜야 relevant 한 것이다!

- · 기본적인 Terms
 - 1. Information need : "유저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"
 - (예) "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심장병 예방에 좋은가?"
 - 2. Query: information need 의 한가지 표현 방식
 - (예) 레드 와인 ^ 화이트 와인 ^ 심장병 ^ 예방
 - 3. Relevance : 일반적으로 이진(binary) 속성으로 나타내며 단순히 query term을 다 포함해야 relevant 한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need 를 잘 충족 시켜야 relevant 한 것이다!



Term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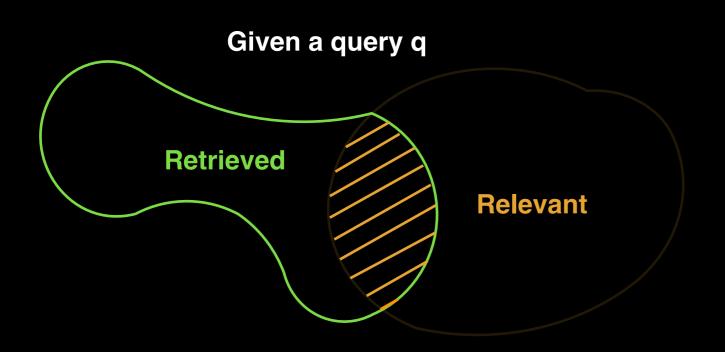
Precision = 검색된 문서 중 relevant 문서의 비율



	retrieved	not retrieved
relevant	tp	fp
non- relevant	fn	tn

Term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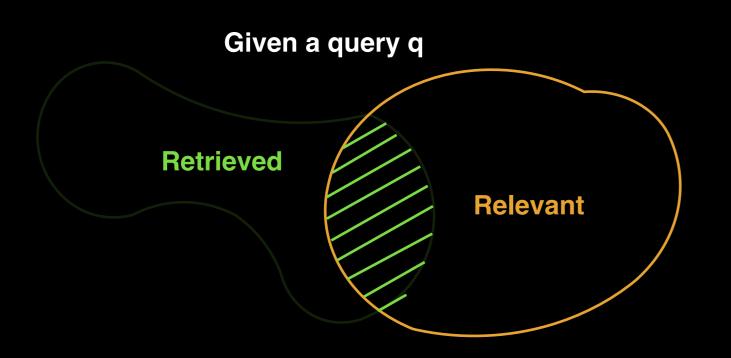
Precision = 검색된 문서 중 relevant 문서의 비율



	retrieved	not retrieved
relevant	tp	fp
non- relevant	fn	tn

Terms

Precision = 검색된 문서 중 relevant 문서의 비율



	retrieved	not retrieved
relevant	tp	fp
non- relevant	fn	tn

Terms

Precision = 검색된 문서 중 relevant 문서의 비율

	retrieved	not retrieved	
relevant	tp	fp	
non- relevant	fn	tn	

· Accuracy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볼까?

• Accuracy =
$$\frac{(tp+tn)}{N}$$

- 그런데 대규모 검색 시스템일수록 query에 대해 non relevant 한 document 수가 대부분이다.
- 검색 결과가 항상 0인 검색 시스템의 Accuracy는?

Acc = (tn) / N = 99.999···% 하지 만 유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··· so NO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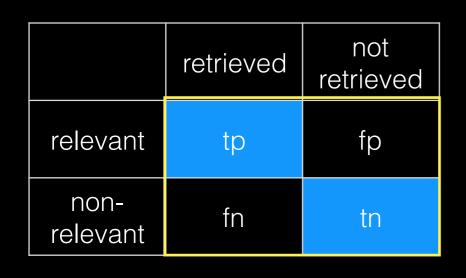
	retrieved	not retrieved
relevant	tp	fp
non- relevant	fn	tn

· Accuracy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볼까?

• Accuracy =
$$\frac{(tp+tn)}{N}$$

- 그런데 대규모 검색 시스템일수록 query에 대해 non relevant 한 document 수가 대부분이다.
- 검색 결과가 항상 0인 검색 시스템의 Accuracy는?

Acc = (tn) / N = 99.999···% 하지만 유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… so NO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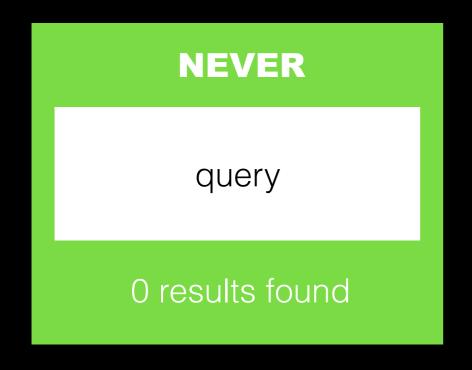
· Accuracy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볼까?

• Accuracy =
$$\frac{(tp + tn)}{N}$$

- · 그런데 대규모 검색 시스템일수록 query에 대해 non relevant 한 document 수가 대부분이다.
- 검색 결과가 항상 0인 검색 시스템의 Accuracy는?

Acc = (tn) / N = 99.999···% 하지만 유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… so NO!

	retrieved	not retrieved	
relevant	tp	fp	
non- relevant	fn	tn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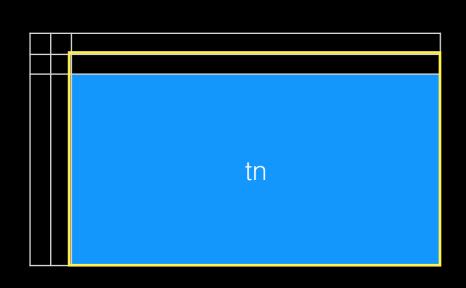
· Accuracy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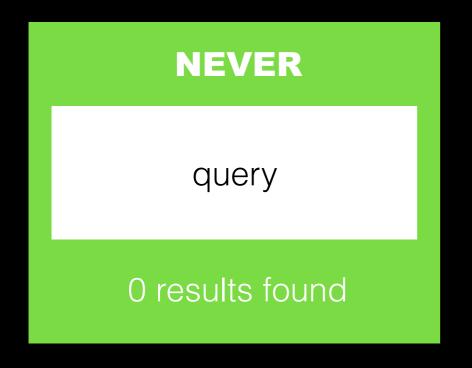
• Accuracy =
$$\frac{(tp+tn)}{N}$$

· 그런데 대규모 검색 시스템일수록 query에 대해 non relevant 한 document 수가 대부분이다.

· 검색 결과가 항상 0인 검색 시스템의 Accuracy는?

Acc = (tn) / N = 99.999···% 하지 만 유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··· so NO!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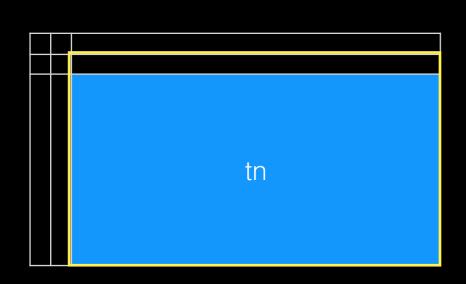
· Accuracy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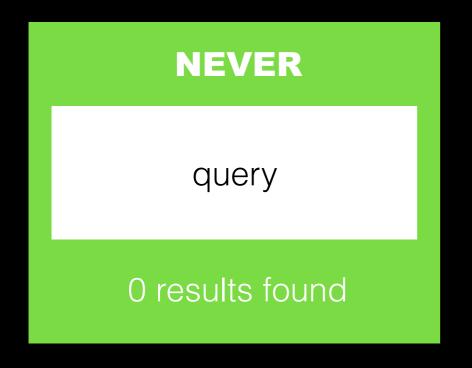
• Accuracy =
$$\frac{(tp+tn)}{N}$$

· 그런데 대규모 검색 시스템일수록 query에 대해 non relevant 한 document 수가 대부분이다.

· 검색 결과가 항상 0인 검색 시스템의 Accuracy는?

Acc = (tn) / N = 99.999···% 하지 만 유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··· so NO!





· Accuracy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볼까?

• Accuracy =
$$\frac{(tp+tn)}{N}$$

· 그런데 대규모 검색 시스템일수록 query에 대해 non relevant 한 document 수가 대부분이다.

· 검색 결과가 항상 0인 검색 시스템의 Accuracy는?

Acc = (tn) / N = 99.999···% 하지만 유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··· so NO!

- 그렇다면 Precision 과 Recall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는 소린데.. 두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측정할 순 없을까?
 - -> F measure (harmonic mean of P and R)

• default balanced F measure 는 precision 과 recall에게 같은 weight를 준다 (즉, a = 1/2; b = 1). 하지만 유저에 따라 precision 과 recall의 선호도는 다르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되겠다.

 그렇다면 Precision 과 Recall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는 소린데.. 두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측정할 순 없을까? F measure (harmonic mean of P and R)

default balanced F measure 는 precision 과 recall에게 같은 weight를 준다 (즉, a = 1/2; b = 1). 하지만 유저에 따라 precision 과 recall의 선호도는 다르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되겠다.

• 그렇다면 Precision 과 Recall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소린데.. 두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측정할 순 없을까? F measure (harmonic mean of P and R)

$$F = \frac{1}{\alpha \frac{1}{P} + (1 - \alpha) \frac{1}{R}} = \frac{(\beta^2 + 1)PR}{\beta^2 P + R} \quad \text{where} \quad \beta^2 = \frac{1 - \alpha}{\alpha}$$

 default balanced F measure 는 precision 과 recall에게 같은 weight를 준다 (즉, a = 1/2, b = 1). 하지만 유저에 따라 precision 과 recall의 선호도는 다르기 때문에 a 값 과 b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되겠다.

• 그렇다면 Precision 과 Recall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소린데.. 두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측정할 순 없을까? F measure (harmonic mean of P and R)

$$F = \frac{1}{\alpha \frac{1}{P} + (1 - \alpha) \frac{1}{R}} = \frac{(\beta^2 + 1)PR}{\beta^2 P + R} \quad \text{where} \quad \beta^2 = \frac{1 - \alpha}{\alpha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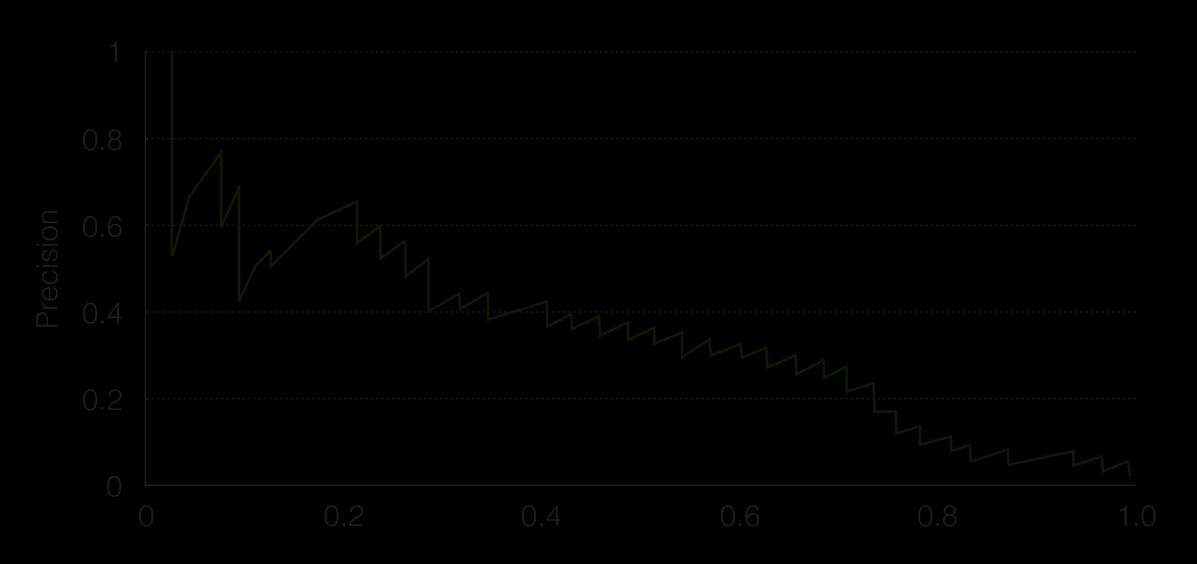
• default balanced F measure 는 precision 과 recall에게 같은 weight를 준다 (즉, $\alpha=1/2,\beta=1$). 하지만 유저에 따라 precision 과 recall의 선호도는 다르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되겠다.

- 아니 근데 왜 더 쉬운 arithmetic mean을 사용하지 않지? Document의 대부분이 non-relevant 하기 때문에 retrieving all documents는 항상 ~50%의 arithmetic mean이 나온다. (R = 1, P ~ 0). 그래서 ㄴㄴ
- Harmonic mean 은 arithmetic mean이나 geometric mean 보다 보수적이다 -> 위와 같은 retrieve all docs 전략을 사용 했을 때? 예를 들어 10,000개 문서 중 1개만 relevant 할 때, harmonic mean은 0.02% 정도 나온다.
- 그럼 Rank가 없는 검색 결과는 user가 P/R중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맟게 a/b값을 설정한 뒤에 F measure를 구 해보면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! 굳굳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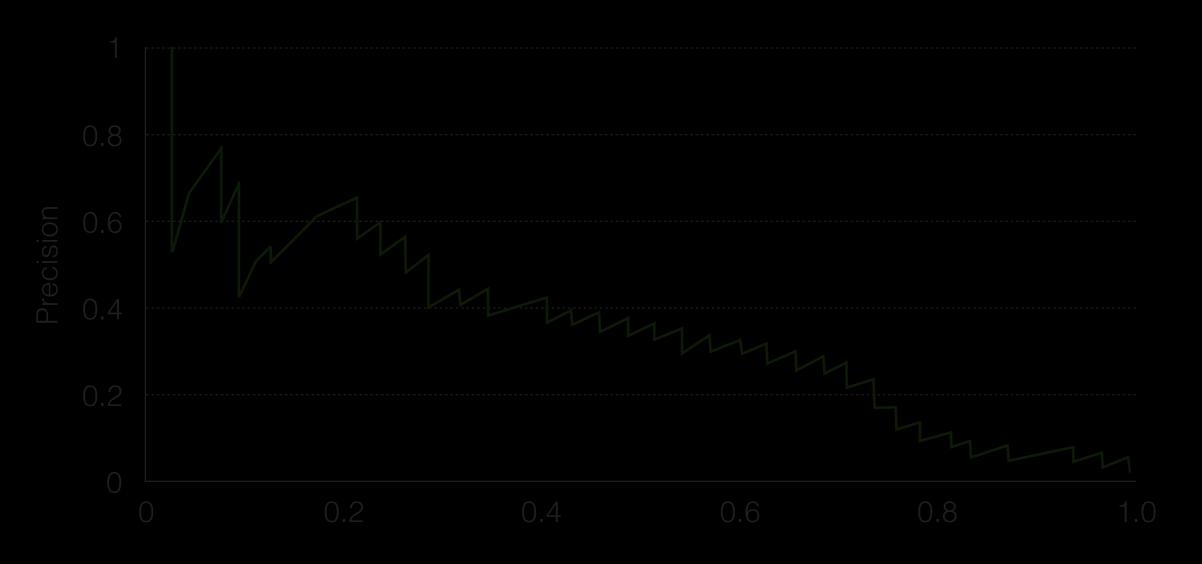
- 아니 근데 왜 더 쉬운 arithmetic mean을 사용하지 않지? Document의 대부분이 non-relevant 하기 때문에 retrieving all documents는 항상 ~50%의 arithmetic mean이 나온다. (R = 1, P ~ 0). 그래서 ㄴㄴ
- Harmonic mean 은 arithmetic mean이나 geometric mean 보다 보수적이다 -> 위와 같은 retrieve all docs 전략을 사용 했을 때? 예를 들어 10,000개 문서 중 1개만 relevant 할 때, harmonic mean은 0.02% 정도 나온다.
- 그럼 Rank가 없는 검색 결과는 user가 P/R중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맟게 a/b값을 설정한 뒤에 F measure를 구 해보면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! 굳굳.

- 아니 근데 왜 더 쉬운 arithmetic mean을 사용하지 않지? Document의 대부분이 non-relevant 하기 때문에 retrieving all documents는 항상 ~50%의 arithmetic mean이 나온다. (R = 1, P ~ 0). 그래서 ㄴ ㄴ
- Harmonic mean 은 arithmetic mean이나 geometric mean 보다 보수적이다 -> 위와 같은 retrieve all docs 전략을 사용 했을 때? 예를 들어 10,000개 문서 중 1개만 relevant 할 때, harmonic mean은 0.02% 정도 나온다.
- ・ 그럼 Rank가 없는 검색 결과는 유저가 P/R중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맟게 α, β 값을 설정한 뒤에 F measure를 구해보면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! <mark>굳굳</mark>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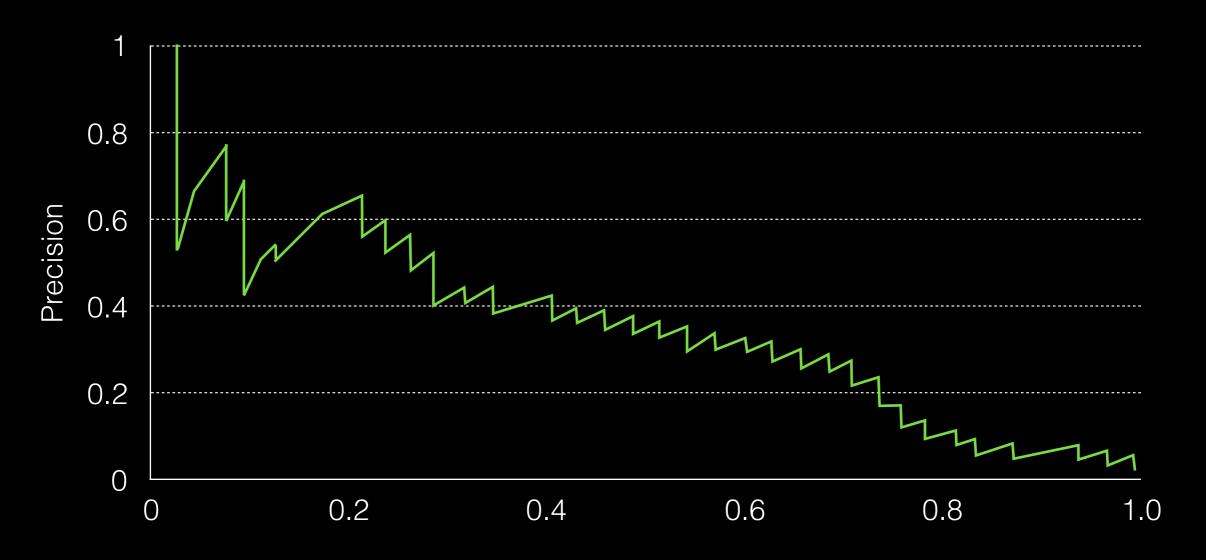
· Ranked retrieval 에서는 relevant하다고 판단되는 top k 개의 문서를 보여준다. 그럼 이 k 개의 ranked 문서들로 평 가를 해야 되겠네. 우선 precision/recall 그래프를 살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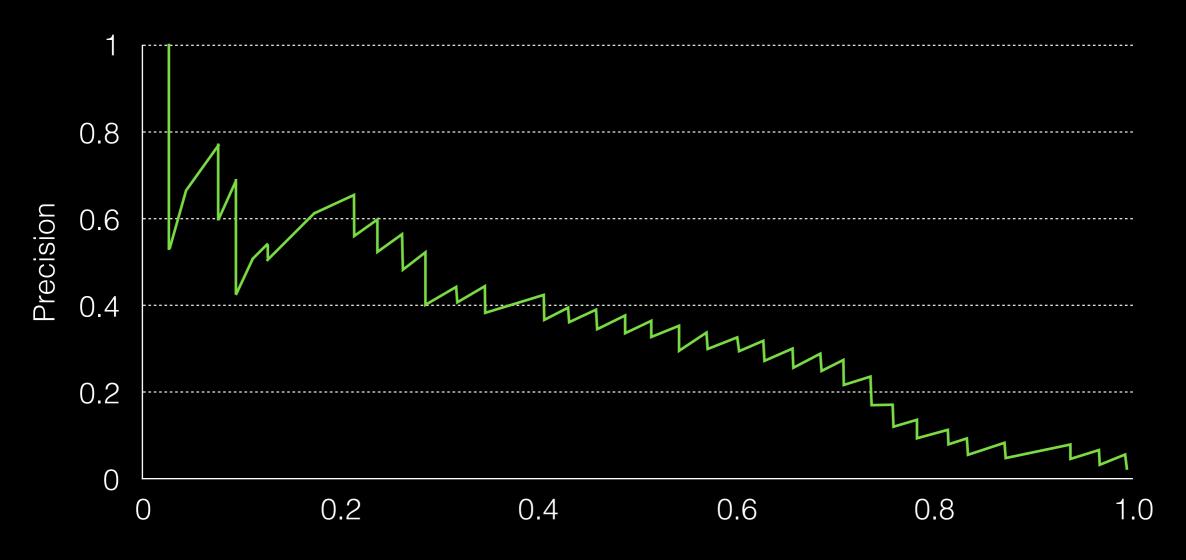


• Ranked retrieval 에서는 relevant하다고 판단되는 top k 개의 문서를 보여준다. 그럼 이 k 개의 ranked 문서들로 평 가를 해야 되겠네. 우선 precision/recall 그래프를 살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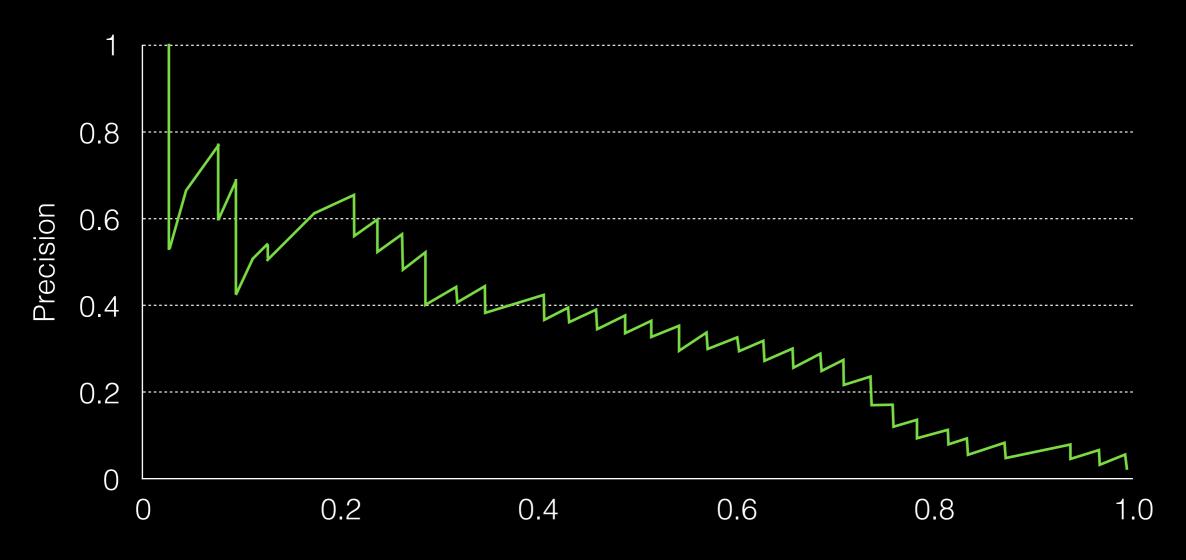


• Ranked retrieval 에서는 relevant하다고 판단되는 top k 개의 문서를 보여준다. 그럼 이 k 개의 ranked 문서들로 평 가를 해야 되겠네. 우선 precision/recall 그래프를 살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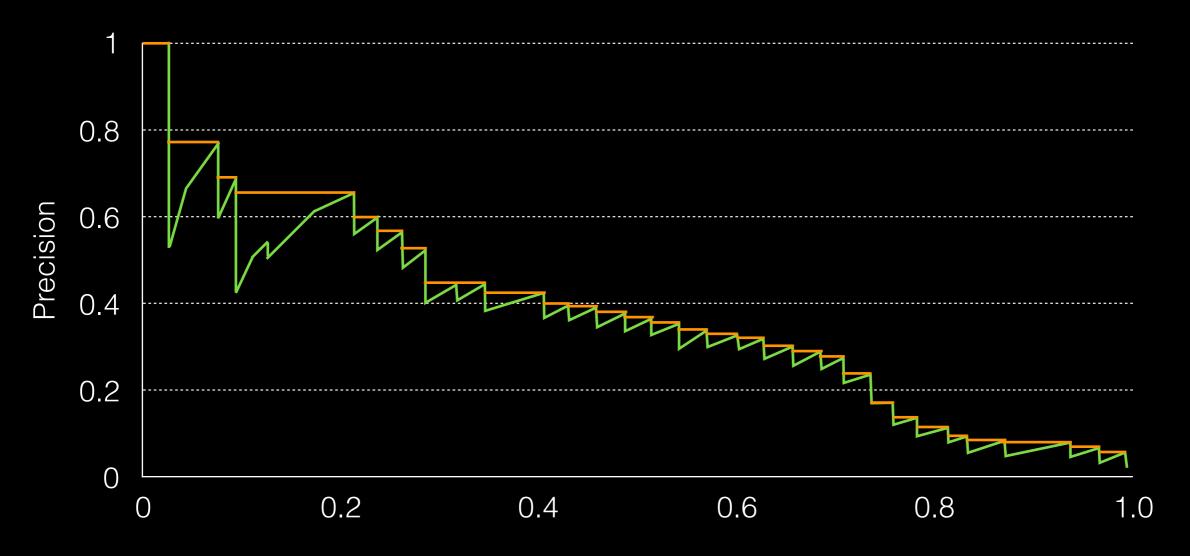




• 톱니 모양처럼 생겼다 : k+1 번째 검색된 document가 relevant 하다면 recall/precision 모두 증가하고(우상향), non-relevant 하다면 drop한다 (recall은 그대로, precision만 감소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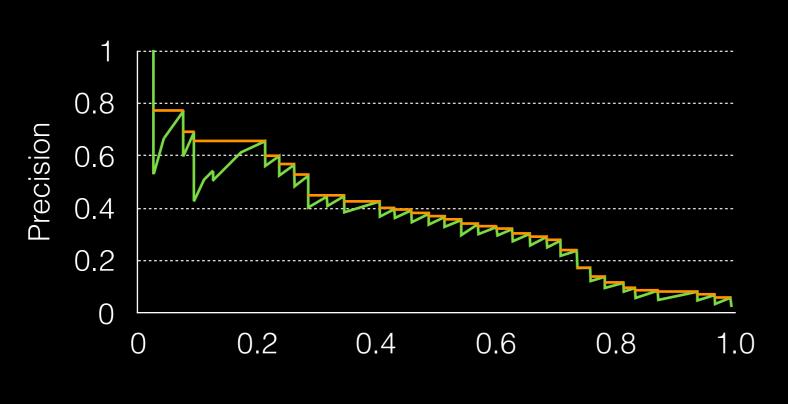
- 여러모로 톱니모양이 불편하니까 interpolated precision
- 다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몇개만 뽑아볼까? -> 11 point interpolated average precision



- 여러모로 톱니모양이 불편하니까 interpolated precision
- · 다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몇개만 뽑아볼까? -> 11 point interpolated average precision



- 여러모로 톱니모양이 불편하니까 interpolated precision
- 다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몇개만 뽑아볼까? -> 11 point interpolated average precision



Recall	Interp. P		
0.0	1.00		
0.1	0.67		
0.2	0.63		
0.3	0.55		
0.4	0.45		
0.5	0.41		
0.6	0.36		
0.7	0.29		
0.8	0.13		
0.9	0.10		
1.0	80.0		

Interpolated precision graph

11 point Interp. avg
precision table

- 여러모로 톱니모양이 불편하니까 interpolated precision
- 다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몇개만 뽑아볼까? -> 11 point interpolated average precision

Recall	Interp. P	Recall	Interp. P	Recall	Interp. P
0.0	1.00	0.0	0.97	0.0	1.00
0.1	0.67	0.1	0.88	0.1	0.72
0.2	0.63	0.2	0.62	0.2	0.63
0.3	0.55	0.3	0.57	0.3	0.59
0.4	0.45	0.4	0.45	0.4	0.45
0.5	0.41	0.5	0.41	 0.5	0.42
0.6	0.36	0.6	0.33	0.6	0.36
0.7	0.29	0.7	0.29	0.7	0.33
0.8	0.13	0.8	0.11	0.8	0.13
0.9	0.10	0.9	0.10	0.9	0.11
1.0	0.08	1.0	0.02	1.0	0.08

IR System 1

IR System 2

IR System N

- 아… 그런데 recall이 0.1일 때 precision이 얼마고, 0.2일 때는 얼마고… 이래서는 시스템들을 비교하기가 불편하다! 모든 recall level 에서의 quality를 하나로 묶어서 볼까?
- MAP (Mean Average Precision)

Recall	Interp. P
0.0	1.00
0.1	0.67
0.2	0.63
0.3	0.55
0.4	0.45
0.5	0.41
0.6	0.36
0.7	0.29
0.8	0.13
0.9	0.10
1.0	0.08

Recall	Interp. P
0.0	0.97
0.1	0.88
0.2	0.62
0.3	0.57
0.4	0.45
0.5	0.41
0.6	0.33
0.7	0.29
0.8	0.11
0.9	0.10
1.0	0.02

Recall	Interp. P
0.0	1.00
0.1	0.72
0.2	0.63
0.3	0.59
0.4	0.45
0.5	0.42
0.6	0.36
0.7	0.33
0.8	0.13
0.9	0.11
1.0	0.08

IR System 1

IR System 2

IR System N

- 아… 그런데 recall이 0.1일 때 precision이 얼마고, 0.2일 때는 얼마고… 이래서는 시스템들을 비교하기가 불편하다! 모든 recall level 에서의 quality를 하나로 묶어서 볼까?
- MAP (Mean Average Precision)

$$MAP(Q) = \frac{1}{|Q|} \sum_{j=1}^{|Q|} \frac{1}{m_j} \sum_{k=1}^{m_j} Precision(R_{jk})$$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 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$$MAP(Q) = \frac{1}{|Q|} \sum_{j=1}^{|Q|} \frac{1}{m_j} \sum_{k=1}^{m_j} Precision(R_{jk})$$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$$MAP(Q) = \frac{1}{|Q|} \sum_{j=1}^{|Q|} \frac{1}{m_j} \sum_{k=1}^{m_j} Precision(R_{jk})$$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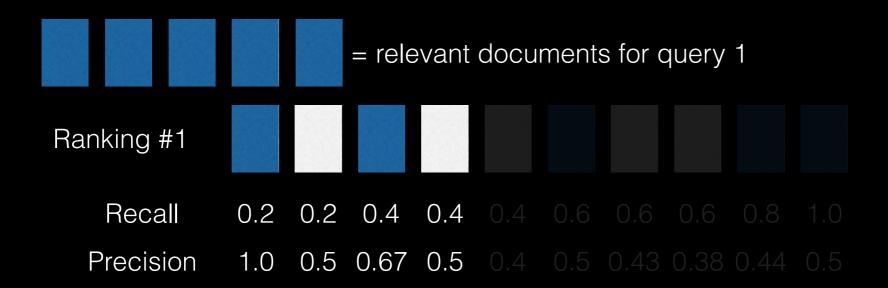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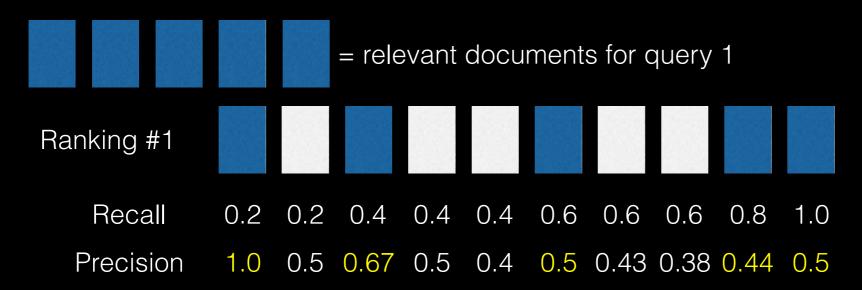
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MAP (Mean Average Precisi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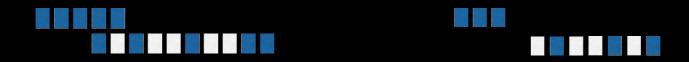
Average Precision for query 1 = 0.62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MAP (Mean Average Precision)



Average Precision for query 1 = 0.62

Average Precision for query 2 = 0.44

$$MAP = (0.62 + 0.44) / 2 = 0.53$$

- (1) 각 information need 당 retrieval set을 rank 순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precision을 계산한다. Relevant document가 모두 계산에 반영되는 순간(R = 1이 될 때) 다음 query로!
- (2) 모든 쿼리에 관해 (1)을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하면 끛.

- MAP (Mean Average Precision)
 - (1) MAP가 꽤 괜찮은 performance 및 안정성을 보인다
 - (2) 한 시스템에서 다른 여러 information needs에 관한 MAP 값보다 여러 시스템들 사이에서 한 information need의 MAP값이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.
 - (3) 그래서 시스템의 퀄리티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쿼리들로 실험해보고 평가해 보는 것이 필 요함!

- MAP (Mean Average Precision)
 - (1) MAP가 꽤 괜찮은 performance 및 안정성을 보인다
 - (2) 한 시스템에서 다른 여러 information needs에 관한 MAP 값보다 여러 시스템들 사이에서 한 information need의 MAP값이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.
 - (3) 그래서 시스템의 퀄리티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쿼리들로 실험해보고 평가해 보는 것이 필 요함!

- MAP (Mean Average Precision)
 - (1) MAP가 꽤 괜찮은 performance 및 안정성을 보인다
 - (2) 한 시스템에서 다른 여러 information needs에 관한 MAP 값보다 여러 시스템들 사이에서 한 information need의 MAP값이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.
 - (3) 그래서 시스템의 퀄리티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쿼리들로 실험해보고 평가해 보는 것이 필 요함!

- (1) 그런데 MAP는 모든 recall level에서 precision을 계산해야 되네… 보통 웹서퍼들은 그냥 첫페이지에 뭐 나오나에 관심이 더 많은데?
- (2) 그래서 나온게 precision at K : 처음 k 개의 문서에 대 해서만 평가를 내린다.

 - 단점: 안정성도 떨어지고, 평균도 제대로 안나오고….

- (1) 그런데 MAP는 모든 recall level에서 precision을 계산해야 되네… 보통 웹서퍼들은 그냥 첫페이지에 뭐 나오나에 관심이 더 많은데?
- (2) 그래서 나온게 precision at K : 처음 k 개의 문서에 대 해서만 평가를 내린다.
 - 장점: relevant doc. set 사이즈에 대한 estimation 이 필요 없다.
 - 단점: 안정성도 떨어지고, 평균도 제대로 안나오고….

-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? 전체 relevance set을 고려하지 말고 "지금까지 알려진" relevance set으로만 계산을 해보자: R-precision.
 - (1) 알려진 Relevant doc set: Rel
 - (2) 검색 결과에서 top |Rell개만 보자! 그 중에 r 개가 relevant 하다면? precision 과 recall 모두 r/|Rell.

-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? 전체 relevance set을 고려하지 말고 "지금까지 알려진" relevance set으로만 계산을 해보자: R-precision.
 - (1) 알려진 Relevant doc set: Rel
 - (2) 검색 결과에서 top |Rell개만 보자! 그 중에 r 개가 relevant 하다면? precision 과 recall 모두 r/|Rell.

-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? 전체 relevance set을 고려하지 말고 "지금까지 알려진" relevance set으로만 계산을 해보자: R-precision.
 - (1) 알려진 Relevant doc set: Rel
 - (2) 검색 결과에서 top |Rell개만 보자! 그 중에 r 개가 relevant 하다면? precision 과 recall 모두 r/|Rell.

• 기계학습과 함께 NDCG(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)의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

$$NDCG(Q, k) = \frac{1}{|Q|} \sum_{j=1}^{|Q|} Z_{kj} \sum_{m=1}^{k} \frac{2^{R(j,m)} - 1}{\log_2(1+m)}$$

• 기계학습과 함께 NDCG(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)의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

$$NDCG(Q,k) = rac{1}{|Q|} \sum_{j=1}^{|Q|} Z_{kj} \sum_{m=1}^{k} rac{2^{R(j,m)}-1}{log_2(1+m)}$$
 Gain

• 기계학습과 함께 NDCG(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)의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

$$NDCG(Q,k) = rac{1}{|Q|} \sum_{j=1}^{|Q|} Z_{kj} \sum_{m=1}^{k} rac{2^{R(j,m)}-1}{log_2(1+m)} ext{ Gain}$$

• 기계학습과 함께 NDCG(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)의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

$$NDCG(Q,k) = rac{1}{|Q|} \sum_{j=1}^{|Q|} Z_{kj} \sum_{m=1}^{k} rac{2^{R(j,m)}-1}{log_2(1+m)} ext{ Gain}$$

Normaliser

• 기계학습과 함께 NDCG(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)의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

$$NDCG(Q, k) = \frac{1}{|Q|} \sum_{j=1}^{|Q|} Z_{kj} \sum_{m=1}^{k} \frac{2^{R(j,m)} - 1}{\log_2(1+m)}$$

- Relevance 측정하기
 - (1) 각 (d,q) 페어마다 relevance를 측정해햐 하는데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가고, 시간이 많이 걸린다.. 각 query 당 document 의 subset만을 고려하자 : pooling
 - (2) 어디에서 subset을 뽑아오지? 여러 다른 IR 시스템에서 top k개를 뽑아오기도 하고 boolean keyword search나 검색 고수들이 찾은 document collection에서!
 - (3) Relevance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? Kappa statistics

- Relevance 측정하기
 - (1) 각 (d,q) 페어마다 relevance를 측정해햐 하는데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가고, 시간이 많이 걸린다.. 각 query 당 document 의 subset만을 고려하자 : pooling
 - (2) 어디에서 subset을 뽑아오지? 여러 다른 IR 시스템에서 top k개를 뽑아오기도 하고 boolean keyword search나 검색 고수들이 찾은 document collection에서!
 - (3) Relevance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? Kappa statistics

- · Relevance 측정하기
 - (1) 각 (d,q) 페어마다 relevance를 측정해햐 하는데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가고, 시간이 많이 걸린다.. 각 query 당 document 의 subset만을 고려하자 : pooling
 - (2) 어디에서 subset을 뽑아오지? 여러 다른 IR 시스템에서 top k개를 뽑아오기도 하고 boolean keyword search나 검색 고수들이 찾은 document collection에서!
 - (3) Relevance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? Kappa statistics

Kappa Statistics

$$kappa = \frac{P(A) - P(E)}{1 - P(E)}$$

where P(A) = 판단이 일치할 확률

$$P(A) = (61 + 25) / 94 = 0.915$$

 $P(E) = P(A = YES) * P(B = YES) + P(A = NO) * P(B = NO)$
 $= (67/94) * (63/94) + (31/94) * (27/94)$
 $= 0.572$

Kappa Statistics

$$kappa = \frac{P(A) - P(E)}{1 - P(E)}$$

where P(A) = 판단이 일치할 확률

94명이 장학금 신청. 심사 위원 A/B의 결정		В	
		YES	NO
А	YES	61	2
	NO	6	25

$$P(A) = (61 + 25) / 94 = 0.915$$

 $P(E) = P(A = YES) * P(B = YES) + P(A = NO) * P(B = NO)$
 $= (67/94) * (63/94) + (31/94) * (27/94)$
 $= 0.572$

Kappa Statistics

$$kappa = \frac{P(A) - P(E)}{1 - P(E)}$$

where P(A) = 판단이 일치할 확률

94명이 장학금 신청. 심사 위원 A/B의 결정		В	
		YES	NO
А	YES	61	2
	NO	6	25

$$P(A) = (61 + 25) / 94 = 0.915$$

$$P(E) = P(A = YES) * P(B = YES) + P(A = NO) * P(B = NO)$$

$$= (67/94) * (63/94) + (31/94) * (27/94)$$

$$= 0.572$$

Kappa Statistics

$$kappa = \frac{P(A) - P(E)}{1 - P(E)}$$

where P(A) = 판단이 일치할 확률

94명이 장학금 신청. 심사 위원 A/B의 결정		В	
		YES	NO
А	YES	61	2
	NO	6	25

$$P(A) = (61 + 25) / 94 = 0.915$$

 $P(E) = P(A = YES) * P(B = YES) + P(A = NO) * P(B = NO)$
 $= (67/94) * (63/94) + (31/94) * (27/94)$
 $= 0.572$

Kappa Statistics

$$kappa = \frac{P(A) - P(E)}{1 - P(E)}$$

where P(A) = 판단이 일치할 확률

94명이 장학금 신청. 심사 위원 A/B의 결정		В	
		YES	NO
А	YES	61	2
	NO	6	25

Kappa Statistics

$$kappa = \frac{P(A) - P(E)}{1 - P(E)}$$

where P(A) = 판단이 일치할 확률

94명이 장학금 신청. 심사 위원 A/B의 결정		В	
		YES	NO
А	YES	61	2
	NO	6	25

$$P(A) = (61 + 25) / 94 = 0.915$$

 $P(E) = P(A = YES) * P(B = YES) + P(A = NO) * P(B = NO)$
 $= (67/94) * (63/94) + (31/94) * (27/94)$
 $= 0.572$

좀 더 넓은 관점에서: 시스템의 질과 유저의 행복

- 검색 시스템의 quality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?
 - (1) Document 인덱싱을 얼마나 빨리하지?
 - (2) 검색은 또 얼마나 빠르지? (인덱스 사이즈로 나타낸 함수의 latency는?)
 - (3) Query 언어의 표현력은?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는 얼 마나 빠르지?
 - (4) Document collection의 사이즈는? 얼마나 많은 topic들을 다루고 있지? 등등

좀 더 넓은 관점에서: 시스템의 질과 유저의 행복

- · 검색 시스템의 quality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?
 - (1) Document 인덱싱을 얼마나 빨리하지?
 - (2) 검색은 또 얼마나 빠르지? (인덱스 사이즈로 나타낸 함수의 latency는?)
 - (3) Query 언어의 표현력은?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는 얼 마나 빠르지?
 - (4) Document collection의 사이즈는? 얼마나 많은 topic들을 다루고 있지? 등등

- · 검색 시스템의 quality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?
 - (1) Document 인덱싱을 얼마나 빨리하지?
 - (2) 검색은 또 얼마나 빠르지? (인덱스 사이즈로 나타낸 함수의 latency는?)
 - (3) Query 언어의 표현력은?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르지?
 - (4) Document collection의 사이즈는? 얼마나 많은 topic들을 다루고 있지? 등등

- · 검색 시스템의 quality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?
 - (1) Document 인덱싱을 얼마나 빨리하지?
 - (2) 검색은 또 얼마나 빠르지? (인덱스 사이즈로 나타낸 함수의 latency는?)
 - (3) Query 언어의 표현력은?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르지?
 - (4) Document collection의 사이즈는? 얼마나 많은 topic들을 다루고 있지? 등등

- 검색 시스템의 quality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?
 - (1) Document 인덱싱을 얼마나 빨리하지?
 - (2) 검색은 또 얼마나 빠르지? (인덱스 사이즈로 나타낸 함수의 latency는?)
 - (3) Query 언어의 표현력은?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르지?
 - (4) Document collection의 사이즈는? 얼마나 많은 topic들을 다루고 있지? 등등

- 유저의 utility는 어떤 기준을 두고 봐야할까?
 - (1) Relevance, 속도, 그리고 UI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 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-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같은 검색엔진을 다음 번 검색에도 사용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겠 다.
 - (2)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:검색자 비율로 측정해 볼 수도, 구매가 이루어 졌을 때 사이트 오너와 구매자의 필요가 모두 충족 되었는지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. 일반적으로 오너와 유저 중 하나를 대상으로 최적화를 해야한다. (보통 우리에게 돈을 쥐어주는 쪽은 사이트 오너다).
 - (3) 여하튼 일반적으로 유저의 utility는 측정하기 어렵고, 그래서 relevance notion을 사용하는 우회법을 택한다.

- 유저의 utility는 어떤 기준을 두고 봐야할까?
 - (1) Relevance, 속도, 그리고 UI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같은 검색엔진을 다음 번 검색에도 사용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겠다.
 - (2)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:검색자 비율로 측정해 볼 수도, 구매가 이루어 졌을 때 사이트 오너와 구매자의 필요가 모두 충족 되었는지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. 일반적으로 오너와 유저 중 하나를 대상으로 최적화를 해야한다. (보통 우리에게 돈을 쥐어주는 쪽은 사이트 오너다).
 - (3) 여하튼 일반적으로 유저의 utility는 측정하기 어렵고, 그래서 relevance notion을 사용하는 우회법을 택한다.

- 유저의 utility는 어떤 기준을 두고 봐야할까?
 - (1) Relevance, 속도, 그리고 UI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같은 검색엔진을 다음 번 검색에도 사용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겠다.
 - (2)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:검색자 비율로 측정해 볼 수도, 구매가 이루어 졌을 때 사이트 오너와 구매자의 필요가 모두 충족 되었는지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. 일반적으로 오너와 유저 중 하나를 대상으로 최적화를 해야한다. (보통 우리에게 돈을 쥐어주는 쪽은 사이트 오너다).
 - (3) 여하튼 일반적으로 유저의 utility는 측정하기 어렵고, 그래서 relevance notion을 사용하는 우회법을 택한다.

- 유저의 utility는 어떤 기준을 두고 봐야할까?
 - (1) Relevance, 속도, 그리고 UI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같은 검색엔진을 다음 번 검색에도 사용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겠다.
 - (2)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:검색자 비율로 측정해 볼 수도, 구매가 이루어 졌을 때 사이트 오너와 구매자의 필요가 모두 충족 되었는지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. 일반적으로 오너와 유저 중 하나를 대상으로 최적화를 해야한다. (보통 우리에게 돈을 쥐어주는 쪽은 사이트 오너다).
 - (3) 여하튼 일반적으로 유저의 utility는 측정하기 어렵고, 그래서 relevance notion을 사용하는 우회법을 택한다.

- 이미 시스템은 빌드가 되어있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?
 - (1) 시스템의 variant들을 만든 후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: A/B testing

A/B testing : 기존 시스템에서 한가지 variant만 바꿔놓고 소수의 유저들을 새롭게 바뀐 시스템으로 redirect. 그리고 top result를 클릭하는 빈도 수, 혹은 첫 페이지의 결과를 클릭하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clickthrough loganalysis 방식을 사용해서 평가한다.

- 이미 시스템은 빌드가 되어있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?
 - (1) 시스템의 variant들을 만든 후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: A/B testing

A/B testing : 기존 시스템에서 한가지 variant만 바꿔놓고 소수의 유저들을 새롭게 바뀐 시스템으로 redirect. 그리고 top result를 클릭하는 빈도 수, 혹은 첫 페이지의 결과를 클릭하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clickthrough loganalysis 방식을 사용해서 평가한다.

- 이미 시스템은 빌드가 되어있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?
 - (1) 시스템의 variant들을 만든 후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: A/B testing

A/B testing: 기존 시스템에서 한가지 variant만 바꿔놓고 소수의 유저들을 새롭게 바뀐 시스템으로 redirect. 그리고 top result를 클릭하는 빈도 수, 혹은 첫 페이지의 결과를 클릭하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clickthrough log analysis 방식을 사용해서 평가한다.

- 이미 시스템은 빌드가 되어있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?
 - (1) 시스템의 variant들을 만든 후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: A/B testing

A/B testing: 기존 시스템에서 한가지 variant만 바꿔놓고 소수의 유저들을 새롭게 바뀐 시스템으로 redirect. 그리고 top result를 클릭하는 빈도 수, 혹은 첫 페이지의 결과를 클릭하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clickthrough log analysis 방식을 사용해서 평가한다.

A/B테스트는 쉽게 deploy될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고!

References

- Evaluation in information retrieval,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: http://npl.stanford.edu/IR-book/pdf/08eval.pdf
- 정보 검색론, 이준호
- IRBasic_Evaluation_조근희.pdf

Questions?